

펠릭스 과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 주체성 생산과 '실존적 영토'를 중심으로*

이찬웅 (이화여자대학교, 부교수)

〈목 차〉

- I. 사유의 문제와 궤적
- II. 주체화의 문제
- III. 세 가지 생태학
- IV. 실존적 영토
- V. 가치의 우주

국문 초록

본 논문은 과타리의 저작 『세 가지 생태학』(1989)과 『카오스모즈』(1992)에 담겨 있는 '생태철학'의 핵심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는 "세 가지 생태학"을 개념적 무기로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획일적 주체화를 비판하고, 대신 다양한 주체화 방식의 조건에 대해 탐구했다. 세 가지 생태학이란 자연, 정신, 사회의 세 층위로 확장되고 횡단화된 일반 생태학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그가 "리토르넬로"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것은 교란하는 반복, 반복 증상, 기도, 회합의 의식, 슬로건 등을 포함하고, "자기 준거적인 실존적 영토"를 확보하는 시작점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주체성의 생산은 근본적으로 예술적인 성격을 갖는다.

주제어: 생태철학, 정신분석학 비판, 카오스모즈, 리토르넬로, 인류세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8 096301).

I. 사유의 문제와 궤적

오늘날 인류는 생태와 기술의 두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한편으로 인류 전체의 에너지 소비와 자연 사용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경고가 들려오고 있다. 과학자들과 사상가들은 이를 ‘인류세’ 또는 ‘자본세’ 등의 이름으로 명명하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인식과 실천을 촉구하고 있다. 다른 한편, 정보기술과 생명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과 유사한 정신과 신체를 가진 존재자들이 등장해 인간에 대한 기존의 이해와 위상에 결정적인 도전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포착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질문들은 최근 ‘인공지능’이나 ‘포스트휴먼’과 같은 용어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프랑스의 사상가였던 펠릭스 과타리(Félix Guattari)¹가 33년 전에 출간한 『세 가지 생태학』(1989)의 첫머리를 읽으면 마치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행성 지구는 강력한 과학기술의 변형의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 대가로 정해진 시간 안에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구의 표면 위의 생명의 정착을 위협하는 생태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TE, 11/7)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인류세’라는 명칭은 물론 여기에 등장하지 않지만, 이 문장에는 그것과 거의 비슷한 시대 진단과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과타리의 주된 관심은 (자연) 생태계의 위기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보다 더 넓은 영역에 걸쳐 있는데, 인간의 삶과 사회적 관계의 형해화(形骸化)가 그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단락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격변과 평행하게,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인간 삶의 양식들은 점점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혈연의 관계망은 최소한으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가정생활은

1. Guattari는 통상 ‘가타리’로 표기되었지만 이 글에서는 ‘과타리’로 표기한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프랑스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발음하기 때문이고, 고유명사는 현지 발음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 이유는 프랑스어의 음운 규칙상으로도 ‘ga’는 /가/로 소리 나고(langage[랑가주]에서처럼), 이와 구별해 ‘gua’는 /과/에 가깝게 소리 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가장 원음에 가깝게 표기하려면 ‘과따리’로 적는 것이 맞겠지만, 외래어표기법에서 된소리는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표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매스미디어의 소비에 의해 부패되고, 결혼과 가족 생활은 종종 일종의 행동의 표준화에 의해 '경화(硬化)되는' 것으로 드러난다.”(IE, 11-12) 생태학은 인간 삶의 조건과 내용을 악화시키는 변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전망을 가져다준다. 과타리는 이러한 이유에서 자연 생태학을 확장해 인간 마음과 사회적 관계의 층위에 적용하고자 한다.

과타리는 이를 심층생태학의 창시자 아르네 네스의 용어법을 빌려와 “생태철학”(écosophie)이라고 명명한다.² 하지만 과타리가 이것에 부여한 의미는 원래의 의미와 사뭇 다른데, 과타리에게 이것은 “생태학의 세 가지 음역, 즉 환경, 사회적 관계, 그리고 인간의 주체성 사이의 윤리-정치적 접합”을 의미한다.(IE, 12) 그리고 이렇게 세 층위로 확장된 ‘일반 생태학’이 바로 이 저서의 제목 “세 가지 생태학”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과타리의 생태철학 또는 ‘세 가지 생태학’의 내용과 목표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것의 현재적 의의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³ 이를 위해 그의 저서 『세 가지 생태학』, 그리고 이와 같은 시기에 쓴 『카오스모즈』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그의 생각을 분석하고 재구성하고자 한다.⁴

펠릭스 과타리는 매우 전투적인 활동가였으며 망설임 없이 많은 사회 조직을 만들고 이끌었다. ‘분자혁명’과 ‘기계적 무의식’을 거쳐 ‘생태철학’으로 나아갔던 그의 궤적을 오늘날 돌이켜볼 때, 그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실천의 소용돌

2. 아르네 네스(Arne Naess)는 생태철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생태철학이라는 말로 내가 의미하는 바는 생태학적 조화 또는 균형의 철학이다. 일종의 지혜 또는 지식으로서의 철학은 개방적인 방식으로 규범적이며, 이것은 우리의 우주에서 사태들의 상황과 관련하여 규범, 규칙, 공리, 가치의 우선순위 진술과 가정들을 모두 포함한다. 지혜는 단순히 과학적 기술과 예견이 아니라 정책의 지혜와 처방이다. 생태철학의 세부사항은 공해, 자원, 인구 등의 ‘사실들’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가치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차이들에 근거한 다양한 변화를 보여줄 것이다.”(Drengson, Alan and Yuichi Inoue (ed), *The Deep Ecology Movement: An Introductory Anthology*, Berkeley: North Atlantic Publishers, 1995, p.8에서 재인용)

3. 과타리의 생태철학에 관한 주요 선행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신승철, 『펠릭스 과타리의 생태철학』, 그물코, 2011; 신승철, 『철학, 생태에 눈뜨다』, 새문사, 2015, 6장.

4. Chaosmose의 국역본은 ‘카오스모제’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 번역된 표기법이다. 과타리가 자신의 사유의 핵심을 담아 고안한 개념인 ‘chaosmose’는 혼돈(chaos)과 질서(cosmos)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삼투 현상(osmose[오스모즈]), 또는 양자가 현실에서는 언제나 삼투된 상태로 뒤섞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카오스모즈’라고 읽는 것이 적절하다.

이 속에서 미래를 보는 자(visionnaire)였다. 그가 본업에 충실할 때, 그는 헌신적인 (넓은 의미에서) 정신분석학자였다. 그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고, 설 때에는 피아노 연주를, 특히 슈만을 연주하는 것을 좋아했고, 밤늦은 시간에도 열정적으로 정신병 환자들을 치료했다.

그는 라캉의 영향하에서 정신분석학을 습득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라캉주의의 위험성을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비판자가 되었다. 그의 글은 문체가 난해하고 예시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그가 염두에 두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하기는 쉽지 않다. 그를 뛰어난 작가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이 사실이 그가 독창적인 사상가였다는 점을 가리키는 않는다. 어쩌면 그는 많은 현대 프랑스 철학자들과 달리 철학사 훈련에 길들지 않았기 때문에 독특한 용어법으로 동시대의 문제를 포착하고 서술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렸는지도 모른다.

과타리의 사유는 크게 세 시기(또는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⁵ 첫 번째 시기는 정신분석에서 집단과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라캉의 구조주의 정신분석에 호의적이었고 이를 통해 사회적 동역학에 대해 분석하는 법을 습득하려고 했지만, 라캉의 정신분석학이 68사건 이후 보수적인 질서 회복을 정당화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그것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긋고 가장 매서운 비판자가 되었다.⁶ 그는 무의식을 개인의 심리 차원에 가두어 놓은 (구조주의) 정신분석학에 맞서 사회적 집단과 제도의 관점에서 무의식을 이해하고 정신병을 치료하는 관점을 확립했다. 이와 관련해 이 시기에 쓰여진 그의 첫 저작 『정신분석과 횡단성』(1972)에서 두 가지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첫째, 이 저작에는 “기계와 구조”(1969)라는 중요한 논문이 실려 있는데, 이 글은 이후 들뢰즈와의 공동 작업에서 이들이 함께 구조주의를 비판하고 대신

5. 과타리의 지적, 실천적 여정에 관해서는 윤수중, 『욕망과 혁명: 펠릭스 가타리의 혁명사상과 실천활동』, 서강대학교출판부, 2009, 2장 “분자혁명에서 생태철학으로” 참조. 들뢰즈와의 공동 작업, 즉 『안티 오이디푸스』(1972), 『카프카: 소수 문학을 위하여』(1975), 그리고 『천 개의 고원』(1980)으로 이어지는 작업 역시 중요하긴 하나, 이에 대해서는 들뢰즈를 주제로 한 이전 연구들에서 많이 논의되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과타리의 독자적인 작업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6. “정신에 관한 가장 뛰어난 지도작성,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가장 뛰어난 정신분석은 프로이트, 융, 라캉의 업적이라기보다는, 피테, 프루스트, 조이스, 아르토 그리고 베케트의 업적이 아니었을까?” (TE, 25/18)

“육망하는 기계” 같은 기법을 제시하게 되는 맹아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들뢰즈와 과타리는 『안티 오이디푸스』(1972)에서 공동 작업의 성과를 선보이면서, 당시 이론 지형을 주도하고 있었던 정적이고 환원적인 구조 개념을 비판하고, 동적이고 생산적이고 연결하고 분열적으로 증식하는 기계 개념을 과감하게 착상하고 이에 깊이를 부여하며 더욱더 멀리까지 전개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둘째, 오늘날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는 ‘횡단성’(traversalité)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과타리인데, 이 용어는 내키는 대로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라 애초에 분명한 내포를 가지고 있었다. 즉, 원장-의사-인턴-간호사-환자로 이어지는 위계적 수직축과 정신병 환자들이 병원 뒤뜰에서 무질서하게 마주치며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평등한 수평축이라는 두 축이 있다고 할 때, 이 두 축을 사선으로 움직이며 대응하는 것이 새로운 방식의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횡단적 실천이란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위계와 평등, 수직과 수평의 두 축에 내재한 힘과 문제를 인식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직과 수평을 비스듬히 가로질러 가면서 운동해야 한다는 점을 함축한다. 이 개념은 이후 좀 더 일반화되고 존재론과 실천학의 영역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두 번째 시기에 과타리는 『분자혁명』(1977)에서 정치적 혁명의 방식을 자본대 노동이라는 이항대립적인, 그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램분자적’(molaire) 방식에서 인종, 젠더, 연령 등을 기준으로 하는 다양한 소집단들 사이의 관계와 이것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를 긍정하는 ‘분자적’(moléculaire)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표준적인 인간상의 생산을 비판하고, 들뢰즈의 이론을 참조해 “어린이, 부랑자, 동성애자 되기” 등으로 표현되는 다양하고 새로운 주체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시기는 내용상으로 구별된다기보다는 그간 펼쳤던 자신의 생각을 이론적으로 종합하고 재구성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기계적 무의식』(1979) 등이 여기 포함된다. 과타리는 프로이트나 라캉의 정신분석학이 무의식의 성

격을 단지 성적(性的)이고 개인적인 것으로 개념화했던 것에 반대해, 무의식은 일상생활의 모든 곳에 수반되는 것이며,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나 회사 같은 기관에서도 작동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처럼 작동하며 이것을 원인으로 하여 무의식 내에 언어나 기호가 생산되는 것으로 설명했다.

끝으로, 그가 “겨울의 시기”라고 부른 보수화된 1980년대를 버틴 후에 그는 1990년 전후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한다. 그는 생태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생태철학을 전개했는데, 이 시기의 사유는 『세 가지 생태학』(1989)과 『카오스모즈』(1992)에 담겨 있다. 그가 병환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출간한, 아쉽게도 개략적인 형태로만 생각이 담긴 이 두 권의 저서에 초점을 맞추어 좀 더 그의 사상을 살펴보자.

II. 주체화의 문제

과타리가 줄곧 관심을 가졌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주체성, 보다 정확히 말해서 주체화(subjectivation)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주체화란 고정되거나 완결된 상태가 아니라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진행형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체성의 인식 내지 발견이 아니라 생산이다. 숲속에서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나듯이 이런저런 유형의 주체성이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과타리의 이러한 관심이 그를 근대와 현대 철학의 두 지대 모두로부터 구별 짓는다. 왜냐하면 근대철학의 큰 흐름은 초시간적 주체의 발견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반면, 현대철학을 대표하는 축은 그러한 주체 개념이 더 이상 숨 쉴 수 없는 지점까지 비판을 몰아붙인 데 있었기 때문이다.

주체성이란 간단히 말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의미한다. 즉, 동식물도 물론 다른 존재자와 관계 맺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특별한 태도와 능력은 인간에게만 나타난다는 것이다. 서양의 근현대 철학의 역사에서 이러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되었다. 데카르트에게 그것은 인간의 정신이 자신의 생각을 명석판명하게 의

식한다는 뜻에서 '자기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칸트는 인간성의 핵심이 다른 무엇보다 자율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할 선한 행위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 즉 주체의 도덕적 '자기 입법'에 있다고 주장했다. 니체는 기존의 도덕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삶을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대하듯이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뜻에서 '자기 창조'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렇듯 데카르트부터 니체까지 철학의 근대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주체라고 할 때, (니체의 경우는 얼마간 다른 면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인간 내부에 이미 있는 심급, 즉 인간의 다양한 경험과 관념을 종합하는 어떤 초월론적 차원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했다.

반면 1950-70년대 구조주의 운동은 이러한 주체 개념에 대한 혹독한 비판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주체는 사실 실체가 있는 것이라기보다 언어적, 무의식적, 사회적 구조 안에서 효과로서 발생한다. 즉, '내가 하나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가상 또는 허위의식일 뿐이며,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이 인민을 지배하는 일종의 위장 통로로서 기능한다. 달리 말하자면, 내가 나와 직접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우며, 사실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언어와 사회의 구조가 나의 생각과 행동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이름 아래 (포스트)구조주의가 미국에 수용된 이후에 이러한 측면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구조주의와 그 영향을 받은 이론들은 권력의 작동을 은폐하는 구조를 폭로하는 데 에너지를 집중했으며, 대신 여기에서 주체성의 문제 내지 필요성은 급격히 사라졌다.

과타리는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이 모두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것으로 비판하고, 일관되게 주체성 이론의 필요성 그리고 혁신을 주장했다.

“주체는 그 자체로 명백한 것이 아니다. 데카르트가 주장했던 것처럼, 존재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종류의 실존 방식이 의식 바깥에 창출되는 한편, 사유가 자기 자신을 포착하려고 열중할 때 실존의 실재 영토에서 어떤 것도 포착하지 못하면서 회전축을 잃은 팽이처럼 회전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 주체보다는 주체화의 구성요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마도 더 적절할 것이다.”(IE, 24)

데카르트와 칸트가 말한 것처럼 주체성은 단지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선 그러한 관념론적 규정은 인간 실존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지 못하며, 다음으로 의식에 관해 살펴보다라도 의식은 신체에서 분리되는 한 구체적인 실존의 영토 위에서 벌어지는 삶의 양상들, 즉 정동들(affects)을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서양 철학자들이 믿었던 것처럼 인간은 의미화된 세계의 중심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과 세계의 관계에 보다 더 적절하게 접근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인간 개인은 세계를 가로지르고 있는 다양한 작동의 선들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형성된다.

“이 주체화의 벡터들은 필연적으로 개체를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개체는 인간 집단들, 사회 경제적 집단들, 정보 기계들 등과 관련하여 ‘터미널’(단말기, 끝점)의 위치에 놓인다. 따라서 내부성은 서로 간에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명백하게 불일치하는 다양한 구성요소들의 교차점에서 창출된다.”(TE, 24)

이러한 배경에서, 사유가 취해야 할 방향은 주체의 순수하고 확고불변한 내부성으로부터 세계로 외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서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들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주체화의 구성요소들”을 식별하고 측정하는 것이 된다. “매번 중요한 것은 무엇이 개인적인 그리고/또는 집단적인 재독특화(re-singularisation)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주체성의 생산의 장치들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다.”(TE, 21)

과타리에게 주체성이란 각각의 개인과 집단이 자신의 고유한 독특성을 생산, 유지하는 것이며, 그러한 주체성은 별개로 분리되어서 규정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장치들과 함께, 그것들과의 상호작용 안에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말한 주체성의 일반적 의미를 배경으로 할 때, 그가 생각하는 주체성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새로운 생산적 배치의 근원에 위치하는 비신체적 가치 체계에 속하는 인식, 문화, 감성 그리고 사회성의 생산”(TE, 43/33)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주체성이란 감각하고 인식하고 교류하는 데 있어 독특한 방식이 존재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이러한 규정은 단순

하고 일견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타리가 보기에 인류는 매우 난처하고 극복하기 힘든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통합된 세계 자본주의”⁷하에서 다양한 주체성의 생산은 근본적인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III. 세 가지 생태학

생태학은 어떤 조건에서 생명 종이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각자 실존적 영토를 확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향유할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 이런 지점으로부터 과타리는 생태학을 개념적 무기로 삼아 다시 한번 자본주의 비판에 나선다.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여타 모든 종류의 주체성을 납작하게 압살하고, 대신 경제적 이윤이라는 가치 하나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주체성을 대량 생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타리의 텍스트는 ‘인류세’ 또는 ‘자본세’의 도래를 예견하고 있고, 그의 눈에 ‘통합된 세계 자본주의’는 이 행성 위의 삶의 조건을 급속도로 황폐화시키고 있었다.⁸

7. ‘통합된 세계 자본주의’(Capitalisme Mondial Intégré)라는 표현은 과타리 본인이 만든 것으로 추측되고 『세 가지 생태학』에서 약자로 CMI라고 반복해서 사용할 정도로 이것을 중요한 시대적 변화로 포착하고 있었다. “후기 산업 자본주의, 내가 선호하는 표현으로는 ‘통합된 세계 자본주의’는 점점 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구조의 권력의 초점을, 특히 미디어, 광고, 여론조사에 행사하는 통제의 편향을 통해서 기호, 통사법, 주체성의 생산 구조의 방향으로 탈중심화하는 경향이 있다.”(TE, 40)

8. 최근 많이 언급되고 있는 개념인 ‘인류세’(Anthropocene)는 2000년 대기화학자 파울 크뤼첸(Paul Crutzen)이 한 학회에서 언급하면서 현재 시대의 규정으로서 떠오른 말이다. 이 용어는 지질학의 명칭으로서 아직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않았지만, 생태 위기와 관련하여 인문사회과학자들과 환경론자들에 의해 더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 독특한 시대 규정은 인류의 소비 방식과 과학기술의 힘이 지구의 환경적 특성을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원인으로 부상한 상황을 지시한다. 이러한 진단이 광범위한 동의를 확보하고 있지만, 학자들 사이에는 인류세의 시작 시점과 관련하여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와 가까운 순으로 나열하자면 1950년대, 18세기 중반, 신석기이다. 다수의 과학자들은 과학적 증거에 근거해 1950년대 이후로 지구의 생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몇몇 인문사회과학자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18세기 중반부터 인간 사회와 자연 세계의 상호작용이 새로운 국면이 진입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반면 몇몇 고고인류학자는 신석기 시대에 농경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규정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현재 인류세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논의의 첨예한 문제를 담지 못하는 단점이 있는 것 같다. 반면 ‘인류세’라는 명칭이 현재의 전지구적 생태 위기의 원인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비판과 함께 그에 대한 대안적 명칭으로 ‘자본세’(Capitalocene)를 제시하는 이들이 있다. 인류 전체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한계 없는 성장과 개발의 추구가 그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은 위에서 말한 인류세

과타리가 “세 가지 생태학”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연, 정신, 사회의 세 층위로 확장된 일반 생태학을 의미한다. “생산주의 사회가 인류에 가한 주요 위협”은 삼중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행성에서의 우리의 생존이 단지 환경 파괴로 인해 위협받을 뿐 아니라, 사회적 연대망과 심리적 삶의 방식의 쇠퇴에 의해서도 위협받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말 그대로 다시 발명되어야 할 것이다.”(C, 37/35) 과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은 아르네 네스의 (자연) 심층생태학, 그레고리 베이트슨(Gregory Bateson)의 ‘마음의 생태학’, 그리고 머레이 북친(Murray Bookchin)의 사회 생태학을 직간접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있다.⁹ “이러한 생태철학의 재개 없이는, 생태학의 세 가지 근본적 음역들의 재접합이 없이는, 불행히도 다음과 같은 모든 위험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인종차별주의, 종교적 광신, 반동적인 폐쇄로 기울어지는 국가주의적 분열, 어린이들의 노동 착취, 여성 억압 등등.”(TE, 23)

세 가지 생태학은 현대 사회가 다원화된 만큼 통일적인 사회운동의 목표를 설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연과 인간 세계에 대한 특정한 목표들을 설정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실천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통합적인 목표들, 이를테면 세계 내의 굶주림에 대한 투쟁, 삼림 채벌 중단, 또는 원자력 산업의 무분별한 증식의 중지 같은 목표들의 정의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관점”(TE, 21)을 취한다.

첫째, 자연생태학이 중요한 것은 삶의 방식들이 다양하게 탈중심화되어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원래 의미의 생태학, 즉 자연생태학은 인간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의 삶의 조건과 직접 관련된다는 점에서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활동가인 과타리에게 그것은 보다 넓은 맥락과 연결되면서 더 깊은 의미를 획득한다. “내 생각에는 오늘날 존재하는 것과 같은 환경 생태학은 내

가 18세기 중반에 시작되었다고 보는 입장과 연결된다. 인류세의 의미와 대안적 이론들에 대해서는 열 C. 엘리스, 김용진, 박범순 역, 『인류세』, 교유서가, 2021 참조. 자본세에 대해서는 이 책, 224-225쪽 참조.

9. 과타리의 세 가지 생태학이 세 명의 사상과 맺고 있는 관계를 밝히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지만, 과타리의 저서 내에 이들에 대한 언급은 매우 간략하게만 나타나서, 이에 대한 분석은 별도의 세밀하고도 광범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다만 베이트슨의 저서는 앞서 『천 개의 고원』에서 이미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다. 그레고리 베이트슨, 『마음의 생태학』(1972), 박대식 역, 책세상, 2006 참조.

가 여기서 권유하는 일반화된 생태학을 단지 개시하고 예고할 따름이다. 이 일반화된 생태학의 목적은 사회적 투쟁과 그것의 고유한 정신을 수용하는 방식을 급진적으로 탈중심화하는 것이다.”(TE, 47) 더군다나 과타리가 보기에 환경 생태학이라는 중요한 운동은 종종 정치 혐오나 반동적 정치 경향과 결합된다는 점에서, 그것이 인간과 사회의 영역과 어떻게 결합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생태학은 주체성과 자본주의적 권력의 형성들 전체를 논점으로 삼는다.”(TE, 48)

그리고 인간의 삶과 자연의 접면은 늘 기술 또는 기계였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기계적 생태학”(TE, 68)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오늘날 여러 사상가들이 지적하고 이론화하고 있지만, 이들에 앞서 이미 과타리는 자연과 문화 사이의 단순한 구분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그 어느 때보다 자연은 문화와 분리될 수 없고, 생태계, 기계권, 그리고 사회적 및 개인적 준거 우주 사이의 상호작용을 ‘횡단적으로’ 사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TE, 34) 과타리가 과학기술에 대해 갖는 태도는 단순히 저항적이지도 순응적이지도 않다. 한편으로 그것이 인류의 삶의 전체적인 방향을 거의 비가역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것의 진행 방향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보 혁명, 로봇 혁명, 유전 공학의 발전, 시장 전체의 세계화, (...) 운송 속도와 커뮤니케이션의 가속화는 비가역적 사실상의 상태를 구성한다 (...) 어떤 방식으로든 이러한 사실상의 상태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오늘날의 조건 안에서 사회적 운동 전체의 목표와 방식의 재구성을 함축한다.”(TE, 33)

둘째, 정신생태학은 우리의 삶에 준거 신화나 준거 서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런 이유에서 문학, 서사, 예술, 철학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정신 생태학은 주체가 신체, 환상, 지나가는 시간, 삶과 죽음의 신비와 맺는 관계를 재발명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 대중매체와 원격통신의 획일화, 유행의 순응주의, 광고와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조작에 대한 해독제를 연구하는 것이 된다.”(TE, 22)

셋째, 사회생태학은 인간관계의 양상에 따라 상이한 주체성이 형성되고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적 생태철학은 커플, 가족, 도시의 상황, 노동의 한복판에 존재 방식을 변형하고 재발명하고자 하는 특정한 실천들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TE, 22) 예를 들어, 학생이 선생을 단순히 모방하는가, 아니면 스타일이 전이되는가 하는 것은 교육의 문제에서 중요하다. 후자의 경우, 이후 학생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다른 스타일로 변이를 일으키고 분기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대목은 거대 부동산업자 도널드 트럼프가 수만 가족을 홈리스로 만든 사회생태학적 재난을 지적하면서, 이를 해초가 해안가를 황폐화시키는 자연생태학의 상황에 비유했다는 점이다.(TE, 34/26) 그로부터 28년 후에 그는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과타리가 보았던 세계보다 얼마나 더 나빠졌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여기에서 과타리의 ‘확장된’ 생태학은 이 세 가지 층위를 사선으로 횡단하기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횡단의 생태학’이고, 세 층위의 단편들을 한데 묶었을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배치의 생태학’이다.

“정신, 사회 및 환경에 가해지는 작용을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미디어가 계속 그렇게 하듯이 이 세 영역의 악화를 대면해 직시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은 대중의 의견을 유아적으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파괴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기획과 맞닿아 있다. 특히 텔레비전이 퍼뜨리는 진통제 성격의 담론의 중독으로부터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우리의 세 가지 생태학적 관점이 구성하는 교환 가능한 세 가지 렌즈를 통해 세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TE, 32)

IV. 실존적 영토

그의 주체화 개념은 제도적, 집단적, 횡단적, 실존적, 미래지향적 성격을 띠고 있다. 첫째, 주체성은 개인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제도와 작은 집단들 안에서 생산된다. 그리고 신체적, 심리적, 심미적, 경제적, 정치적 수준 등 여러 차원의 파편들이 함께 배치되고 작동하면서 만들어진다. 둘째, 의식의 차원에서 주체성을 찾았던 근대철학자들과 달리, 과타리는 주체성

의 근본적 성격을 정념과 실존의 차원에서 찾고 있다. 즉, 우리 삶을 구성하는 아주 구체적인 요소들, 말하자면 기분, 감정, 운동, 활동, 감상, 창작, 참여 등의 심급들이 모여 주체화의 과정을 만들어내고 이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한 이론적 작업이 된다.

셋째, 기존의 철학과 정신분석학이 통일적 주체를 발견하고자 했을 때, 시간의 관점에서 그것은 현재의 경험을 과거의 기억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을 함축한다. 반면 과타리는 주체성의 시간성 자체를 혁신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은 현실로부터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지향적인 주체성은 현재와는 다른 미래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간 분열적이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자신의 이론적 작업이 '분열분석'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에게 분석은 단지 증상의 해석이 아니라 "실존을 분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축매를 발명"하는 것이다.(C, 35/32)

이처럼 주체성의 생산에서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것은 "자기 준거적인 실존적 영토"를 확보하는 것이다.(C, 21/19) 독특한 주체의 출현과 유지 그리고 변모는 그 개체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그것의 실존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한 영토와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 생태학의 핵심 문제는 생명체가 고립되어 무중력 상태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생태적 영토를 필수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있다. 즉, 앞서 논의했던 세 가지 생태학의 문제 역시 결국은 각각의 인간이 가져야 하는, 그리고 갖게 되는 실존적 영토(Territoire existentiel)의 문제와 연관된다.

“세 가지 생태학에 공통적인 원리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대면하게 하는 실존적 영토들이 즉자적이고 자기 안으로 폐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하고, 유한하고, 유한하게 만들어졌고, 독특하고, 독특하게 만들어진 대자(pour-soi)로서 주어진다 데 있다. 그리고 후자는 지층화되고 죽음에 이르는 되풀이의 방향으로 분기되거나, 아니면 인간의 기획에 의해 '거주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실천으로부터 과정적 개방의 방향으로 분기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이다.”(TE, 49)

실존적 영토의 발생은 그가 “리토르넬로”(ritournelle)라고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리토르넬로는 원래 바로크 음악에서 독주 부분과 대비하여 총주 부

분이 반복하여 연주하는 일종의 후렴구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비발디의 〈사계〉 중 〈봄〉 1악장은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과타리는 이 어휘를 전용해 보다 일반적인 맥락에서 사용한다. 이 개념은 앞서 출간된 그의 단독 저서 『기계적 무의식』, 그리고 들뢰즈와 함께 쓴 『천 개의 고원』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바 있다.¹⁰

과타리가 사용하는 의미에서 리토르넬로는 기존의 의미 연쇄에서 어떤 부분이 절단되고 이탈해, 의미작용(signification)은 상실되지만 독특성과 강렬함의 차원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덕분에 균질화된 시공간으로부터 이질적이고 독특한 시간이 분리되어 분기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어둠 속에서 아이가 짧은 멜로디를 흥얼거리거나, 숲속에서 새가 짧은 소절을 반복적으로 노래할 때, 그것은 각자 자기 자신이 카오스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드는 일이다. 이것이 음성적 리토르넬로라면, 시각적 리토르넬로도 있다. ‘스케노포이에테스 텐티로스트리스’¹¹라는 학명의 새는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등지 주위로 밤새 떨어진 나뭇잎 중에 연한 뒷면이 보이는 잎만 뒤집어 색을 고르게 맞추고 이를 통해 영토를 표시한다. 이 새는 이처럼 자기만의 의식을 통해 리토르넬로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실존적 영토를 확보하고, 그 위에서 독특한 주체로 자기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수립한다.

과타리는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부분 대상’, 동물행동학에서 보여주는 영토성, 뒤상이 말하는 응시의 특징 등을 종합해 리토르넬로가 작동하는 근본적인 차원을 해명한다. 실존적 영토를 형성하는 출발점은 기존의 시공간의 질

10. 이에 대해서는 『기계적 무의식』, 5장 “리토르넬로의 시간”과 부록 “잃어버린 시간의 리토르넬로”, 그리고 『천 개의 고원』, 11번째 고원 “리토르넬로에 대하여” 참조. “리토르넬로에 대하여”는 리듬과 영토성을 중심으로 존재론에서 예술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는 야심찬 기획을 담고 있고, 『천 개의 고원』에서 가장 흥미로운 ‘고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서 전개되고 있는 내용은 들뢰즈와 과타리가 함께 작성한, 이들 ‘사이에서’ 생성되고 있는 독창적인 내용이지만, 리토르넬로 개념의 제안 자체는 과타리로부터 나온 것인 만큼, 그의 단독 저서와 비교, 대조하는 작업은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작업은 다른 기회로 다루기로 하자.

11. 번역하면 ‘툰니 모양의 이빨을 한, 풍경을 만드는 새’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바우어새(Bowerbird)라고 불린다.

서에서 이탈하는 의식, 그것의 습관적 작동을 “교란하는 어떤 반복”이다(TE, 37/28).

“근본적 목표는 의미작용 없는 단절의 지점들(points de rupture a-signifiants) — 내포, 외연, 의미작용의 단절 — 을 포착하는 것이다. 이 지점들에서 시작해서 일정량의 기호학적 연쇄가 실존적인 자기 준거의 효과를 발휘하며 작동하기 시작한다. 반복 증상, 기도, ‘회합’ 의식(儀式), 슬로진, 엠블렘, 리트르넬로, 스타의 얼굴화 결정작용 등이 부분적 주체화의 생산을 개시한다. 이것들이 원시-주체성(proto-subjectivité)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다.”(TE, 53/42)¹²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중요한 기여가 있다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관념적 의미가 없어 보이는, 즉 의미와 단절된 신체적 부분들(가슴, 똥 등)과 이와 관련된 반복 강박이 유아의 주체화 과정에 부분적이고 복잡적이지만 분명히 일차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낸 데 있다. 다만 이러한 부분 대상들이 단지 성적 충동과 개인적 상상계에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했다는 점을 과타리는 비판하는 것이다. 정신분석학이 발견한 파편적이고 과정적인 주체화 이론은 단지 가족적이고 상상적인 차원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제도, 공간, 경제, 우주에 속하는 사물의 차원으로 확대되어 재구성되어야 한다.

일견 무의미해 보이는 반복적인 행위들, 발화들, 의식(rituel)들은 소쉬르가 정의한 의미작용, 즉 기표와 기의 사이의 대응 관계에서 벗어난다는 뜻에서 “의미작용하지 않는 단절”(TE, 38/29)이지만, 그 단편적 표현 요소들의 차이

12. 국역본은 과타리가 빈번하게 사용하는 ‘a-signifiant’을 ‘비기표적’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의미로나 문법적으로 뜻이 잘 통하지도 않을뿐더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signifiant’은 인용문에서 과타리가 부연 설명하는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표’라는 명사가 아니라 ‘signifier’라는 동사의 현재분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쉬르의 기호학에서 기표(소리)와 기의(이미지) 사이의 대응관계, 즉 어떤 기표가 어떤 기의를 떠올리게 하는 작용을 의미작용(signifier/signification)이라고 한다. 소쉬르의 정의에 따르면, 하나의 기호는 이렇게 의미작용으로 묶여 있는 하나의 기표와 하나의 기의로 구성된다. 과타리의 논지는 연속체의 흐름으로부터 어떤 부분이 절단되어 이탈할 때, 그 부분은 인간 개체를 독특하게 만드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체화의 구성요소 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기호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호는 일대일로 대응하는 기의가 부재하기 때문에 소쉬르가 말하는 의미에서 의미작용을 내포하지는 않는다. 요컨대 과타리는 오직 기표-기의의 대응관계라는 의미작용을 전제해야 하는 소쉬르의 기호 개념의 한계를 비판하고, 흐름, 절단, 분기를 통해 작동하는 새로운 기호론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와 반복만으로도 주체적 삶을 위한 “실존적인 자기 증거”의 효과를 발휘한다. 과타리가 보기에 이것이 3인칭 시점에서 보이는 동질적이고 규칙적이고 분석적인 세계로부터 1인칭의 실존을 영점으로 삼는 좌표계가 출현할 수 있는 발생 조건이다. 그것은 근대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절대적이고 순수한 내부성이나, 구조주의가 말하는 것처럼 변별적이고 상징적 요소들의 효과가 아니라, 이미 작동하고 있으며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세계 속의 연쇄로부터 어떤 부분이 단절되고 이탈하면서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짧은 멜로디, 색의 선택, 몸짓의 반복, 자기만의 의식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예술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다.

V. 가치의 우주

언제나 현대적 실천의 이론을 사유했던 과타리에게 주체성은 집단과 자연 안에서 과정으로서 생산되는 것이며, 그러한 주체성의 다양성을 위해 그는 자연, 정신, 사회의 세 층위를 포괄하는 일반 생태학을 제시했고, 이것은 독특한 삶의 방식을 분기시킬 수 있는 실존적 영토와 리토르넬로의 강조로 이어진다. 그의 ‘세 가지 생태학’ 이론은 비판의 준거점이 상실된 현대 사회에서 다시 한번 인류의 삶을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새로운 실천의 지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과타리는 주체성의 생산이 과학적인 성격이 아니라 예술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곳곳에서 강조한다. “자본주의적 주체성, 즉 일차원성, 일반화된 등가성, 차별적 분리의 주체성, 그리고 진정한 타자성에 귀가 어두운 주체성이 밀고 다니는 압축 롤러에 저항하는 가장 의미 있는 핵은 예술이라는 지하운동 은신처에서 발견된다.”(C, 126/121) 정신분석학은 무의식의 흐름과 신체의 중요성을 발견했지만, 수학처럼 보편적인 요인들을 추출하려고 욕망하는 순간 형해화되었다. 반면 분열분석과 생태철학은 보편적인 이론을 형성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 그것은 이론적인 이해가 아니라 실천적인 지혜에 속한다. 그것은 새로운 주체성의 생산을 위해 변이와 분기를 일으키는 요인들을 관찰하고 실험하는 기록에 가깝다. 그런 점에서 생태철학은 예술적 작업의 본

질, 즉 “감각의 블록”의 탈취와 배치와 효과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 “가치의 축, 인간관계와 생산활동의 근본적인 합목적성을 다시 정초하는” 일이 긴요하게 요구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예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의 우주”, 또는 “잠재성의 생태학”(C, 127/122)을 관장하는 정원사이다.

과타리의 사상을 명명하는 여러 이름이 있지만, 어느 경우든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충동보다는 기계를, 리비도보다는 흐름을, 자아와 전이의 심급보다는 실존적 영토를, 무의식적이고 승화의 콤플렉스보다는 비신체적 우주를, 기표보다는 카오스모즈의 존재들에 대해 말하기.”(C, 175/164) 그에게는 인류와 자연을 생각하는 고전적인 애정과 이것들을 훼손하고 있는 동시대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려는 현대적인 열정이 공존한다. 정신분석에 대한 비판, 분열적 주체성에 대한 개념화, 세 가지 생태학, 새로운 윤리-미학적 패러다임의 요구로 이어졌던 그의 긴 작업은 궁극적으로 하나의 책임감을 향한 것이었다. 그 책임감은 “단순히 인류 자신의 생존의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이 행성의 모든 생명의 미래, 즉 동물과 식물 중, 그리고 더불어 음악, 예술, 영화, 시간과의 관계, 사랑, 타인에 대한 연민, 코스모스 한복판에서의 융합의 느낌 같은 비신체적인 중의 미래에 관한 것이다.”(C, 166/157)

참고문헌

* 과타리의 다음 두 문헌을 인용 또는 참조할 때는 약호와 함께 프랑스어본과 한국어본 페이지수를 차례로 병기함. 단 번역은 필자의 것임.

Félix Guattari, *Les trois écologie*, Paris: Galilée, 1989; 펠릭스 과타리, 『세 가지 생태학』, 윤수중 역, 동문선, 2003. (약호 TE)

Félix Guattari, *Chaosmose*, Paris: Galilée, 1992; 펠릭스 과타리, 『카오스모제』, 윤수중 역, 동문선, 2003. (약호 C)

그레고리 베이트슨, 『마음의 생태학』(1972), 박대식 역, 책세상, 2006.

신승철, 『펠릭스 가타리의 생태철학』, 그물코, 2011.

_____, 『철학, 생태에 눈뜨다』, 새문사, 2015, 6장.

윤수중, 『욕망과 혁명: 펠릭스 가타리의 혁명사상과 실천활동』, 서강대학교출판부, 2009.

얼 C. 앨리스, 『인류세』, 김용진, 박범순 역, 교유서가, 2021.

Deleuze, Gilles & Guattari, Félix, *Mille Plateaux*, Paris: Minuit, 1980.

Drengson, Alan and Inoue, Yuichi (ed). *The Deep Ecology Movement: An Introductory Anthology*, Berkeley: North Atlantic Publishers, 1995.

Guattari, Félix. *L'inconscient machinique: essai de schizo-analyse*, Paris: Editions recherches/Encres, 1979.

Abstract

The Three Ecology of Félix Guattari: Focusing on the Production of Subjectivity and 'the Existential Territory'

Lee Chan-Woong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This paper aims to grasp the essential ideas of Félix Guattari's "ecosophy", which are developed in his books, *The Three Ecology* (1989) and *Chaosmose* (1992). Guattari proposes "The Three Ecology" in order to criticize radically the standardized mode of production of subjectivity in integrated global capitalism, and research the condition of the various modes of subjectivation. The three ecology means a general and transversal ecology which is extended to the spheres of nature, mind, and society. The "refrain" which he underlines means a kind of disturbing repetitions in everyday life, and it functions as a starting point for retaining an auto-referential existential territory. This kind of mode of the production of subjectivity pays attention to the capture of concrete blocs of sensation, so it has basically characteristics similar to those of the Arts.

Keywords: ecosophy, critique of psychoanalysis, chaosmose, refrain(*ritournelle*), Anthropocene

논문 투고일 : 2022년 03월 20일
심사 완료일 : 2022년 04월 20일
게재 확정일 : 2022년 04월 20일